

-아서/어서

이유; 그리고 나서(순서)

하나의 어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고, 세 가지 제약이 있어 이 단계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연결 어미입니다. 앞에 시제를 붙일 수 없고, 뒤에 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이 ㅏ 또는 ㅑ	-아서	좋다 → 좋아서
같은 모음끼리 축약	-아서가 흡수됨	가다 → 가서
그 밖의 모음	-어서	먹다 → 먹어서
하다 동사	해서	피곤하다 → 피곤해서
이다	이라서 / 여서	학생이라서
불가	앞에 시제 불가	갔어서는 없음
불가	뒤에 명령 불가	추우니까 닫으세요 — 추워서 가 아님

■ 언제 쓰나요

첫 번째 의미는 이유: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.입니다. 두 번째 의미는 앞뒤가 이어지는 순서로,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으로 이어지며 두 절의 주어가 같습니다: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(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영화를 봤다). -고와 비교해 보세요. -고는 이런 연결 없이 두 행동을 나열할 뿐입니다.

모음 선택은 -아요/어요와 완전히 같고 축약도 똑같이 일어납니다: 가는 가서, 보는 봐서, 마시는 마셔서, 하다는 해서가 됩니다.

이제 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. 앞에 시제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. 갔어서라는 형태는 없으며,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 붙입니다. 또한 뒤에 명령이나 청유가 올 수 없습니다. ‘추우니까 창문을 닫으세요’처럼 말하려면 반드시 -(으)니까를 써야 합니다. 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, 늦어서 죄송합니다 같은 굳어진 인사 표현은 -아서만 씁니다.

■ 예문

- 1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.
- 2 시간이 없어서 택시를 탔어요.
- 3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.
- 4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어요.
- 5 학생이라서 할인을 받았어요.
- 6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.

■ 비교

-(으)니까
둘 다 이유를 나타냅니다. -아서는 원인을 단순한 사실로 제시하고, -(으)니까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판단으로 제시합니다. 그래서 명령이나 청유가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-(으)니까뿐입니다.
추워서 창문을 닫았어요. (평서) / 추우니까 창문을 닫으세요. (요청)

-고
-고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행동을 나열하고, -아서는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며 두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.
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봤어요. (별개의 두 행동) /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. (만나서 함께 봄)

-기 때문에
원인을 더 무겁고 격식 있게 나타내는 표현으로 글에서 많이 씁니다. -아서와 마찬가지로 뒤에 명령이 올 수 없습니다.
비가 와서 못 갔어요. (구어) / 비가 왔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. (문어)

■ 주의

- ✗ 어제 아팠어서 학교에 못 갔어요.
- 어제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.
-아서에는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서 한 번만 나타내고, 나머지는 시간 표현 어제가 알려 줍니다.
- ✗ 시간이 없어서 빨리 오세요.
-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오세요.
-아서 뒤에는 요청이나 제안이 올 수 없습니다. 뒤 절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면 -(으)니까로 바꾸세요.
- ✗ 비가 오아서 못 갔어요.
- 비가 와서 못 갔어요.
오 + 아서는 현재형 와요와 똑같이 와서로 축약됩니다. 보다 → 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.